

교회소식

: 오늘 오후 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 가을 학기를 준비하는 교회학교 교사수련회가 26~27일 양평에서 열립니다.

: 포쇄(曝曬; 젖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쬐고 벌에 바람)를 하는 절기입니다. 내 삶의 음습한 면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주님께서 하늘의 환한 빛과 쾌청한 바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막 1:16~20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이명희 집사

8월	1부 영접위원	안현숙 최미자		
	1부 헌금위원	진정숙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최철수	김광일 백혜숙 김애순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이형숙		

오늘 식당 봉사 :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이미휘 이은옥 송형운 정재기

다음 주 식당봉사 :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윤정화 박범희 조성일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 4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 5남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묘
상
의
소
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 후 제 14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력 있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과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파리 틀고 있는 깊은 원망의 마음을 찬찬히 응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조급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별을 찢고 너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묵묵히 서로의 삶을 세워주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 교 독 문 49. 시편 108편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박홍재 장로
- 2부응 답 송 찬양대
- 2부찬 양 366.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다 함께
- ♣ 성경봉독 약 5:7~11 I. 인도자
II. 정현모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 찬 양 완전한 사랑 찬양대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우리도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리 손 모아 주님 앞에 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구재원 권미숙 김명순 이교영 김성우 박유경 김용길 최영혜 김용진 박효선
김주영 김혜영^a 문홍일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박옥순 박정운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원금 양상철 박재란 우수덕 원효빈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윤정득 은종인 이광용 이미휘 이주경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현죽 임명희
임호성 정영례 정종삼 최 숙 최양순 최은미 최 현 추현영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해리 김해선 김현주 노승현 이재희
노성찬 박순섭 권미숙 박재영 이현정 유경민 이고임 이범석 류정욱 이은혜
임보람 정복순 정연경 1남선교회 무명14

녹색꿈헌금

김향자 오재형 임고운 임설희 최옥자 무명4

생일감사헌금

김정화 박정수 정영선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 교 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그 여름의 끝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이성복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 그 사랑 측량 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 말씀 **농부, 예언자, 읍** 김기석 목사
- 거듭기도 다함께
- 2부찬** 양 김대근 교우
-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 봉헌기도 담임목사
-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미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몸으로 실어 나르는 외로움을 견뎌 내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단비를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 거하십시오.
- 다함께: 아멘.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불평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리고 정직한 땀을 흘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전하겠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 축복 담임목사

믿음으로 읽는 글

소비욕망이라는 종교

개그맨 장동혁은 2010년 2월 8일 KBS <개그콘서트> “봉숭아 학당”에서 일침을 가했다.

“몇천 억이 무슨 애들 이름이야,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시청 하나 짓는 데 몇천 억이 기본. 얼마나 호화스러운지 대리석 바닥에 유리 외벽에 심지어 에스컬레이터까지 웅장하다 웅장해. 거기가 무슨 베르사유 궁전이야? 루이 14세 살아? ... 이거 아니잖아.”

장씨는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호화청사 임대사업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행정”이라며 “호화청사 지을 돈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쿨하게 100층, 500층짜리 러브하우스를 지으란 말이야”라며 풍자했다. 메가청사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메가처치로 옮겨질 수 있다. ...

하이데거는 「예술작품의 근원」에서 그리스 신전이 예술로서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가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신전에는 은폐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하다. 그리스 신전은 신성 그 자체가 아니며 은폐된 진실은 인간의 욕망일 것이다.

메가처치에 들어서는 순간, 관광객이 그리스 신전 앞에서 꺼벅 죽듯이, 메가처치의 웅대함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착각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환상은 똥값을 억(億)으로 만드는 마술이지 않은가. 백화점 1층에 들어서자마자 비싸고 화려한 화장품코너가 있고, 어린이 용품을 파는 층에 올라가자마자 장난감 코너가 펼쳐지는 자본주의의 마술에 우리는 굴복하고 만다. 돈을 숨기고 그럴듯한 대의를 내세우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 욕망으로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 마술의 매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잉여가치를 만들어 내는 자본주의와 잉여쾌락을 만들어 내는 정신분석학의 구조적 상동성이 정확하

게 성공한다”라고 슬라보예 지젝은 지적한다.

미녀를 만드는 성형수술, 그 테크놀로지가 숭엄한 이데올로기가 되듯이, 메가처치를 만드는 자본주의적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신을 밀쳐내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사실 나에게 급한 것은 메가청사나 메가처치를 비판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미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소비과잉문화다. 거리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던 사람들 모두 이제는 소비사회로 돌아갔고, 우리도 권력과 자본을 욕망하지 않았던가.

... 우리는 이미 소비욕망이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있다. 그 병균이 번져 우리의 욕망은 터질 듯하다. 이제 ‘3S 시대’는 ‘메가욕망’으로 바뀌고, 우리 시대의 신은 솔직히 메가욕망이 아닐까. 이제 이데올로기는 곧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다만 ‘소비주의 이데올로기’만 있을 뿐이다. 이 광란의 소비 이데올로기가 지자체의 공인과 기독교의 정신 세계에 침투하고 있다. 공동선을 사랑하고 ‘숨은 신’의 의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우선하는 맘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우리의 종교는 아닌지, 돌맹이들이 외치고 있다.

그런데 맘모니즘을 가장 강력하게 지적했던 한 사내가 있었다. 니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프로이트가 꿈을 꾸기 훨씬 전에, 황금만능주의에 썩어 시장통이 된 성전을 뒤엎어 버린 2000년 전의 그 젊은이 말이다. 그 젊은이는 그때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욕을 퍼부었다. 독사는 광야에 많이 기어 다니는 것이니, 우리말로 하면 ‘똥개의 자식들’, ...이라고 욕하는 것이다. ... 그 젊은이는 그만치 성전이 상업화되는 것을 분노하고 괴로워했다. 프로이트, 라캉, 유하, 슬라보예 지젝이 물신주의를 택한 한심한 교회에 대해 분노하기 훨씬 까마득히 오래전에 갈릴레아의 젊은이는 그렇게 분노했었다 - 주여, 저들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김응교, 「그들 - 문학과 숨은 신」 (새물결플러스) 중에서